

# 《素問·脈要精微論》 중에 나타난 四時脈의 上下 概念에 對한 考察

金 泰熙

## I . 序 論

四時脈이란 “四變之動 脈與之上下”<sup>1)</sup>라 하여 四時氣의 變化에 따라 脈氣도 變化된다는 것을 말하며, 四時氣의 變化는 氣의 升降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天人相應思想에 의해 人體內 脈氣의 變化를 上下로 관찰하는 方法이다. 冬至四十五日에는 陽氣가 微盛하고 陰氣가 微下하며 夏至四十五日에는 陰氣가 微盛하고 陽氣가 微下하므로, 春夏에는 陽氣가 盛하고 秋冬에는 陰氣가 盛해진다. 또 春은 發陳하는 氣가 있어 養生하고, 夏는 蕃秀하는 氣가 있어 養長하며, 秋는 容平하는 氣가 있어 養收하고, 冬에는 閉藏하는 氣가 있어 養藏하게 된다.<sup>2)</sup> 따라서 春에는 “脈浮如魚之游在波”하고, 夏에는 “脈在膚泛泛平萬物有餘”하고, 秋에는 “脈下膚蟄蟲將去”하고, 冬에는 “脈在骨蟄蟲周蜜 君子居室”<sup>3)</sup>이라 하였다. 《靈樞·本輸篇》에서 人體의 氣之所處를 살펴보면 “春取經脈諸榮大經分肉之間, 甚者深取之, 間者淺取之, 夏取諸俞孫絡肌肉皮膚之上, 秋取諸合餘如春法, 冬取諸井諸俞之分, 欲深而留之.”<sup>4)</sup>라 하여, 春과 秋에는 人體氣가 같은 정도에 있으며, 夏에는 가장 위에 冬에는 가장 아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脈要精微論」에서 上下를 보면 春夏秋冬의 순서이나 「本輸篇」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四時脈이 단순히 四時氣의 變化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上下의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 上下개념에 대한 해석은 四時脈에 대해 이해를 도울 것으로 思料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東洋醫學研究院. 1981. P.38

2) 金泰熙. 內經의 脈診과 後代醫家說 比較研究, 서울 慶熙大學校大學院 1987.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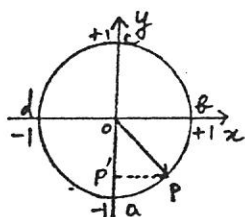
3) 洪元植 前掲書 P.38

4) 洪元植 前掲書 P.210

## II. 本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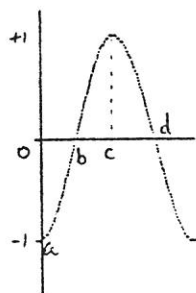
一年의 變化는 春夏秋冬으로 나타나고, 이는 지구와 태양의 관계에 기인한다. 또 陽은 子에서 시작하고 陰은 午에서 시작하며<sup>5)</sup> 一歲의 氣는 子에서 시작하나 이때는 地下에 潛伏하여 發生之功이 나타나지 않고 寅에 와서야 三陽이 始備하여 萬物이 萌芽를 나게 하기 시작한다.<sup>6)</sup>

이러한 一年의 變化는 주기적인 變化이므로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가 정할 수 있다.



OP가 360° 회전하면 2개의 원을 그린다. 즉 一 年을 360일로 하여 y축에 나타나는 OP'의 선분 의 길이 변화를 살피는 것이다.

“天地者 萬物之上下也”<sup>7)</sup>라 하였으므로 上下의 變化 를 살피는 것이다. 이때 OP'는 360일의 시간을 통해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Sin곡선을 그린다.



a점에 있을 때 -1로, 陰으로서의 최대치를 나타내고 c점에서는 +1로, 陽으로 서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동시에 a점에서 b점을 통과하여 c점까지는 -1에서 +1 로 가는 과정을 나타내므로 증가를 나타내고, c점에서 d점을 통과하여 a점까지 는 +1에서 -1로 가는 과정을 나타내므로 감소를 나타낸다.

따라서 a점을 子, b점을 卯, c점은 午, d점을 酉로 가정할 수 있다. 이를

5) 張介賓. 類經圖翼. 慶熙大學校 韓醫學科影印 P. 28

6) 張介賓 前揭書 P. 29

7) 洪元植. 前揭書. P. 19

Fig I이라 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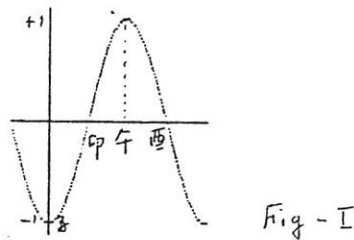


Fig - I

Fig I에서 보면 春秋에는 人氣의 값이 같으며, 夏에는 최대값, 冬에는 최소값을 나타내어 「本輪篇」에서 말한 氣之所處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脈要精微論」의 春日浮, 夏日在膚, 秋日下膚, 冬日在骨은 설명되지 않는다. 여기서 人體氣의 變化속도가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 Fig I을 미분을 하면 다음 Fig II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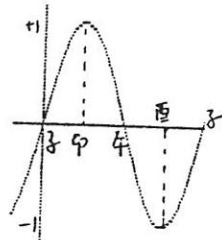


Fig - II

0값을 나타내고 卯와 酉에서 +1의 최대치 -1의 최소치를 나타낸다.

즉 陽에서는 시간당변화되는 속도가 卯에서 가장 크고 陰에서는 酉에서 가장 크다. 그리고 子和 午에서는 변화되는 속도는 0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卯에서 가장 큰 변화속도를 나타내므로 春日浮라 하였다. 夏日在膚는 그 변화되는 속도가 줄기 때문에 春보다 아래에 있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秋冬은 OP'가 감소해가는 과정중에 있으므로 陰에 속한다. 따라서 陽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며 酉가 午보다 아래 있으므로 秋日下膚라 하였다.

冬日在骨은 Fig I에서와 같이 冬은 秋에서 보다 人體의 氣가 아래에 있기 때문이며 秋에서는 陽에서 陰으로 가는 과정이므로 陰의 變化를 살피게 되는데 Fig II에서 절대값으로 살피면 酉가 1이고 子是 0이기 때문에 酉가 子보다 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秋에는 下膚하고 冬에는 가장 아래인 骨에 있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을 비유하여 取象하면 春應中規, 夏應中矩, 秋應中衡, 冬應中權<sup>8)</sup>인 것이다.

### III .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上下는 位置的인 上下의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2. 上下는 氣의 시간에 따른 변화속도의 增減을 말하고 있다.
3. 따라서 四時脈이란 位置的 개념을 갖는 形狀化된 脈狀이 아니다.

### < 參 考 文 獻 >

- 1) 洪元植, 精校皇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 2) 金泰熙, 內經의 脈診과 後代醫家說의 比較研究, 서울 慶熙大學校大學院 1987.
- 3) 張介賓, 類經圖翼, 慶熙醫大韓醫學科 影印.

---

8) 洪元植. 前掲書. P.19